

2009. 8. 3 제220호

# 세계도시동향

## 목 차

### 문화·디자인

1. 도심 인공해변 '파리 플라쥬'에서 여름휴가를! (파리)
2.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아틀리에 레지던스' 프로그램 시행 (파리)
3. 패션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모전 '패션 필름 어워드' 개최 (독일)

### 산업·경제

4. 경기 활성화를 위해 경제회복 대출기금 운영 (런던)
5. 도시정보화 서비스 확충에 약 3조 6000억 원 투자 (상하이)

### 건강·복지

6. '노인 건강 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도쿄)
7. '슈퍼 방학 카드'로 청소년에게 많은 문화체험 기회 제공 (베를린)
8. 학교 급식에 투자 확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
9. '뜨거운 여름은 독서와 함께'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시행 (뉴욕)
10. 재취업을 원하는 실직자를 대상으로 생활자금 대출 확대 (도쿄)
11. 장애인 직업센터 개설 (상하이)

## 목 차

### 행정·재정

12.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주택자금 무이자 대출한도를 50% 증액 (파리)

### 방재·안전

13. 번화가를 대상으로 특별 치안대책 실시 (도쿄)

### 도시환경

14. '지역에서의 에너지 유효이용 계획서 제도' 신설 (도쿄)
15. '식용정원 가꾸기 사업', 왕립원예학회상 수상 (런던)
16. '제품과 서비스의 CO<sub>2</sub> 발생량 표기' 회의 개최 (독일)
17. '미술관 섬'에 거대한 잔디공원 조성 (베를린)
18. 세계 석학이 참여한 기후연구소 설립 (포츠담)

### 도시교통

19. 곡선 모양의 공간절약형 자전거거치대 설치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市)
20. 무공해 수소버스 운행 (브라질 상파울루市)
21. 새 브랜드의 지상전철 개통 (런던)

### 도시계획·주택

22. 도요스 지구를 '운하르네상스 추진지구'로 추가 지정 (도쿄)
23. '에너지 절약형 공영주택' 건설 (파리)
24. 공공주택 디자인지침 마련 (런던)

### 1. 도심 인공 해변 ‘파리 플라쥬’에서 여름휴가를! (파리)

○ 센 강변을 따라 모래 해변을 조성하는 ‘파리 플라쥬’(Paris Plages) 사업이 2009년에는 더욱 다양하게 펼쳐짐.

- 여름휴가를 멀리 떠날 수 없는 시민을 위한 ‘도심 해변’은 도시를 모래사장과 스포츠, 예술 공연, 콘서트 등 문화의 장으로 탈바꿈함.
  - 우주, 바다, 모래, 환경 보전을 주제로 어린이를 위한 아틀리에를 기획하고, 젊은이를 위해 춤과 연극 공연도 준비함.
  - 라 빌레트 공원의 인공연못 주변도 파리 플라쥬가 갖춰져 카약과 페달 보트를 즐길 수 있음.
  - 휴대폰이나 유선전화로 유명 소설가의 신작 소설을 매일 들을 수 있음.
  - 파리 수도공사가 제공하는, 지하 150km 깊이에서 끌어올린 천연 미네랄 물도 마실 수 있음.
  - 市는 일주일 동안 마사지 무료 행사도 벌이고, 건강 상담소도 여는 등 갖가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함.

([www.paris.fr/portail/ete2009/Portal.lut?page\\_id=9281](http://www.paris.fr/portail/ete2009/Portal.lut?page_id=9281))

#### >>> 전문가 검토의견

- 여름휴가를 떠나지 못한 시민이나, 명절 때처럼 대부분 서울을 떠날 때 남아 있는 시민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은 시민 위안 차원에서나 문화 다양성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됨.
  - 서울시에서도 이미 명절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서울광장 문화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운영하고 있는 바, 더욱 많은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소를 다양하게 해 지역별로 많은 시민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라도삼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kuber21@sdi.re.kr)

## 2.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아틀리에 레지던스’ 프로그램 시행 (파리)

○ 파리는 2006년부터 예술, 패션, 디자인 작업공간인 아틀리에를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고 있음.

- ‘파리 아틀리에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예술가나 창작예술 회사에 약 200㎡의 독립공간을 제공하고 교육과 교류, 재정 등을 지원하는 일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함.

· 이 프로그램은 6개월 동안 진행되며, 한 번 더 지원이 가능함.

· 시는 처음 6개월 동안은 1㎡에 6유로(약 1만 원), 그 뒤 6개월은 11유로(약 2만 원)의 월 임대료를 받음.

- 2009년 6월 2일부터 27일까지 ‘파리의 아틀리에 레지던스, 그 창작의 여정’이란 제목으로 전시회를 열고, 6월 19일에는 작업공간을 일반에 공개함.

([www.paris.fr/portail/Economie/Portal.lut?page\\_id=105&document\\_type\\_id=2&document\\_id=68740&portlet\\_id=22043](http://www.paris.fr/portail/Economie/Portal.lut?page_id=105&document_type_id=2&document_id=68740&portlet_id=22043))

## 3. 패션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모전 ‘패션 필름 어워드’ 개최 (독일)

○ 독일연방 경제부는 공모전 ‘독일 패션 필름 어워드’(German Fashion Film Award) 개최 공고를 냄.

- 공모전의 취지는 독일 패션디자인 산업을 육성하고 디자이너의 국제무대 진출을 지원하는 데 있음.

· 주안점을 두는 사항은 패션디자인과 영화의 연계, 즉 젊은 패션디자이너와 영화아카데미 졸업생의 공동작업을 독려하는 것임.

- 공모 대상은 2년 이상 8년 이하 경력의 젊은 디자이너로, 자신의 작품을 비디오클립으로 만들어 응모해야 함.

· 응모 분야는 여성패션, 남성패션, 액세서리 부문이며, 세계적 패션 전문가가 부문별 최고 필름상과 음악상을 선정함.

- 우수작으로 뽑은 30개 작품은 2010년 ‘베를린 패션 주간’에 선보이며, 전 세계 독일대사관과 인터넷에서도 상영함.
  - 연방 경제부는 이번 공모전으로 ‘Made in Germany’뿐 아니라 ‘Created in Germany’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대함.
- ([www.bmwi.de/BMWi/Navigation/Presse/pressemitteilungen,did=306606.html](http://www.bmwi.de/BMWi/Navigation/Presse/pressemitteilungen,did=306606.html))

## 산업 · 경제

### 4. 경기 활성화를 위해 경제회복 대출기금 운영 (런던)

- 런던개발청은 최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제회복 대출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함.
- 이 프로그램은 市の 경제회복 실행계획(Economic Recovery Action Plan)의 일환으로, 경기침체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중소기업에 1만 파운드(약 2000만 원)에서 5만 파운드(약 1억 원)까지 대출해줌.
- 이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음.
  - 실행 가능한 계획이 있고, 대출금을 갚을 정도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 직원이 250명 이하거나 4500만 파운드(약 900억 원) 규모 이하의 사업
  - 자영업체, 주식회사, 사회적기업 또는 자선단체
  - 런던에서 주된 활동을 벌이는 사업
  - 지난 12개월 동안 거래가 있었던 사업
  - 기존 일자리를 보호하거나 새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

([www.lda.gov.uk/server.php?show=ConWebDoc.3264](http://www.lda.gov.uk/server.php?show=ConWebDoc.3264))

## 5. 도시정보화 서비스 확충에 약 3조 6000억 원 투자 (상하이)

- 2009년 7월 6일 중국 연합인터넷통신회사는 도시정보화 서비스 확충을 위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00억 위안(약 3조 6000억 원) 투자를 약정하는 협정을 상하이市와 맺음.
  - 주요 내용은 상하이의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통신 분야 일자리 창출, 성공적인 국제박람회 개최를 위한 서비스 지원 강화, 통신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통신서비스 질 향상 등을 추진하는 것임.
    - 구체적으로 엑스포 통신서비스 지원에 8억 위안(약 1450억 원)을 투자하고,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함.
  - 市는 앞으로 인터넷 정보 서비스망을 구축해 휴대폰 결제, 식당·호텔 예약, 여행지 소개 및 추천 등의 정보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임.

([www.shanghai.gov.cn/shanghai/node2314/node2315/node4411/userobject21ai348324.html](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314/node2315/node4411/userobject21ai348324.html))

### 한 줄 뉴스

- 브라질
  - 2009년 7월부터 무허가 영세자영업자(노점상, 가내 수공업자 등)가 월 50헤알(약 2만 5000원)만 내면 영업 합법화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
  - 쇼핑센터에 출장 민원서비스 센터를 주말에 설치해 다양한 민원서비스 제공

### 6. ‘노인 건강 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도쿄)

○ 도쿄都 복지보건재단은 밝고 활력 있는 장수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제14회 노인 건강 스포츠 페스티벌’을 도쿄都和 공동 개최함.

- 2009년 9월 27일부터 10월 22일까지 도내 여러 경기장에서 펼쳐짐.
  - 대회 종목은 라지볼 탁구, 테니스, 연식정구(소프트 테니스), 소프트볼, 게이트볼, 페탄크(프랑스 볼링), 마라톤, 궁도, 검도 등 9개임.
  - 1951년 이전에 태어난(2009년 현재 59세 이상) 도내 거주자가 참가할 수 있으며, 최고령 참가자에게는 ‘대회 최고령자상’을 수여함.
  - 매년 약 2000명이 참가하며, 2008년에는 85세 이상이 80명 정도 참가했는데, 이 중 90세 이상이 12명임.
- 고령자의 스포츠 활동과 건강증진 활동을 촉진하고, 고령자 간·세대 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www.metro.tokyo.jp/INET/BOSHU/2009/06/22j6q200.htm](http://www.metro.tokyo.jp/INET/BOSHU/2009/06/22j6q200.htm))

### >>> 전문가 검토의견

- ‘노인 건강 스포츠 페스티벌’은 노인에게 적합한 종목을 선택하여 대회를 열고, 특히 고령 노인의 참여를 독려해 노인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스포츠 참여를 도모함.
- 노인의 지속적인 신체활동은 건강수명 연장과 성공적인 노화를 가져오며,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에도 기여함.
- 서울시는 서울에 사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5개 자치구 대표팀(2500여명 참여)을 구성해 댄스체조, 에어로빅스, 건강체조 분야 대항전을 치르는 ‘서울시 어르신 생활체육 축제’를 2006년부터 매년 열고 있음.
- 전국 단위의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종목과 연계하여 체조 부문에 국한하지



- 말고 게이트볼, 탁구, 배드민턴처럼 노인에게 적합한 종목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종목별로 경기를 진행해 지역 간 선의의 경쟁으로 우정과 화합의 마당을 만들고, 건전하고 유익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인의 스포츠 참여 동기를 유발하고 참여를 확산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함.

/노은이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eyn@sdi.re.kr)

## 7. ‘슈퍼 방학 카드’로 청소년에게 많은 문화체험 기회 제공 (베를린)

○ 베를린市 교육부는, 학생이 방학에 다양한 놀이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각종 스포츠와 문화행사에서 할인 또는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9유로(약 1만 6000원)짜리 ‘슈퍼 방학 카드’(Super-Ferien-Pass)를 발급함.

- 학생은 이번 여름방학부터 2010년 4월까지 방학과 연휴 기간에 다양한 스포츠 강좌를 무료 또는 할인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음.

- 극장, 미술관, 실내·외 놀이공원을 할인가격으로 이용하고 피크닉, 문화 워크숍 등에 무료로 참가함.

- 베를린에 거주하는 18세 이하 청소년이면 누구나 편의점과 신문 가판대에서 카드를 구입할 수 있음.

([jugendkulturservice.de/ger/ferienpass/super-ferien-pass.php?navid=8](http://jugendkulturservice.de/ger/ferienpass/super-ferien-pass.php?navid=8))

### >>> 전문가 검토의견

- 베를린市의 ‘슈퍼 방학 카드’ 발급은 방학을 맞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업임.

- 학기 중보다 방학에 여유시간이 많은 청소년이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문화향유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제도로 보임.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대중교통 이용과 고궁 입장·관람 시 청소년 우대 할인은 있지만, 청소년의 문화생활을 위한 카드는 없음.

- 2010년에 티머니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 문화카드’가 발급될 예정임.
- 서울巽도 청소년이 문화 공연이나 스포츠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카드를 발급하되, 우선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혜숙 창의시정연구본부 부연구위원([lhsook1@sdi.re.kr](mailto:lhsook1@sdi.re.kr))

## 8. 학교 급식에 투자 확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巽)

○ 리우데자네이루巽은 학교 급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투자를 늘릴 계획임.

- 식료품 종류를 늘리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연 2100만 헤알(약 110억 원)을 추가 투자함.
  - 앞으로는 점심식단에 고기와 웨이정(콩으로 만든 요리)을 기본으로 포함하고, 아침식사에는 빵과 비스킷을 제공함.
  - 매주巽 관보와 학교 입구에 급식 메뉴를 게시해 학부모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학교 급식 납품업체가 정해진 기한에 식료품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 내는 벌금을 해당 식료품가격의 5%에서 15% 수준으로 올리고, 납품업체 수도 점차 늘려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도록 유도함.

([noticiasrio.rio.rj.gov.br/index.cfm?sqncl\\_publicacao=19126](http://noticiasrio.rio.rj.gov.br/index.cfm?sqncl_publicacao=19126))

## 9. ‘뜨거운 여름은 독서와 함께’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시행 (뉴욕)

○ 뉴욕巽의 5개 자치구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뉴욕 관내 100여 개 공공도서관에서는 여름 독서프로그램(Summer Reading)을 5세 미만 영·유아, 초등학생, 중고생, 성인 반으로 나눠 실시함.
  - 독서 목록을 참고하여 선정한 책을 읽고 토론하는 프로그램, 아이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뉴욕을 주제로 같이 공부하는 프로그램, 극작(劇作) 및 작시

(作詩) 프로그램 등이 있음.

- 뉴욕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상세한 내용이 있으며, 참가 희망자는 가까운 도서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지역사회 교육문화 활동의 일환으로 독서프로그램을 몇십 년에 걸쳐 운영하고 있음.

- 미국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www.summerreading.org](http://www.summerreading.org))

## 10. 재취업을 원하는 실직자를 대상으로 생활자금 대출 확대 (도쿄)

○ 도쿄都是 실업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무직자에게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사업을 2009년 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시행함.

- 지원 대상은 실업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세대주임(한 세대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세대원도 가능함).

· 대출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도쿄 일센터에서 취업 지원을 받아야 함.

- 都是 최근 이 사업을 재검토해 2009년 7월 15일부터 지원책을 다음과 같이 확대 시행함.

· 대출 한도액은 1인 가구의 경우 월 15만 엔(약 200만 원), 가족이 함께 사는 가구의 경우 월 20만 엔(약 270만 원)임.

· 육아 가구는 월 5만 엔(약 67만 원) 한도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입학금, 수업료 등 자녀 교육비 명목으로 자녀 1명당 50만 엔(약 67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음.

· 대출받을 때 연대 보증인이 필요하나, 보증인이 없는 경우 연 1.5%의 이자만 내면 됨.

· 상환기간은 1년 거치 후 7년 만기이며, 육아 가구 추가대출은 10년 만기임.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7/20j76500.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7/20j76500.htm))

## 11. 장애인 직업센터 개설 (상하이)

○ 2009년 7월 6일 상하이市 보산구(寶山區) 문화센터에 장애인 직업센터가 새로 문을 열.

- 이 센터는 장애인의 취업지원만이 아니라 장애인이 문화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저명인사 초청강연도 마련함.

· 보산구 내 장애인 일자리 350개를 만들어 수건, 신발끈 등 30여 개 제품을 만들도록 함.

· 보산구에서는 직업센터 등록 장애인에게 수건, 모자, 신발 등의 경공업 제품이나 엑스포 마스코트 등의 수제품 제작을 의뢰해 구매할 예정임.

· 상하이에 있는 무역회사, 택배회사, 포장회사가 장애인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자재 구매, 제품 생산 및 판매 등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임.

- 상하이 소재 약 100개 기업과 푸단 대학 교수와 학생은 다양한 분야의 도서와 영상자료를 기부함.

([www.shanghai.gov.cn/shanghai/node2314/node2315/node4411/userobject21ai348092.html](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314/node2315/node4411/userobject21ai348092.html))

## 행정 · 재정

## 12.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주택자금 무이자 대출한도를 50% 증액 (파리)

○ 파리시의회의는 2009년 7월 6일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2300만 유로(약 407억 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연대 분야에 2900만 유로(약 510억 원), 사업투자 분야에 1억 7000만 유로(약 3000억 원)의 예산을 우선 책정함.

- 市의회는 무이자 주택자금 대출한도를 1인 가구의 경우 2만 4200유로(약 4200만 원)에서 3만 6300유로(약 6400만 원)로,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3만

9600유로(약 7000만 원)에서 5만 9400유로(약 1억 450만 원)로 각각 50% 정도 증액함.

- 市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1년 이상 파리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구입할 때 무이자로 주택자금을 대출해줌.

- 市의회는 에너지 절약과 온실효과 감소를 위해 백열전구를 에너지 절약형 전구로 바꾸는 사업에도 예산을 책정함.

- 市는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약 30만 개의 전구를 준비함.

- 전구 교체로 1년에 약 20GWh의 에너지 절약효과가 기대됨.

([www.paris.fr/portail/accueil/Portal.lut?page\\_id=1&document\\_type\\_id=2&document\\_id=71042&portlet\\_id=21961](http://www.paris.fr/portail/accueil/Portal.lut?page_id=1&document_type_id=2&document_id=71042&portlet_id=21961))

## 한 줄 뉴스

- 브라질 쿠리치마市
  - 기존 종이를 나무를 사용하지 않고 저렴하게 만든 새로운 친환경 종이로 교체
  - 휠체어 이용자 등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서민주택 공급
- 상하이
  - 에너지 효율이 1.2등급인 절전형 에어컨 구매자에게 2010년 5월까지 400~1000 위안(약 7만~18만 원)의 보조금 지급

## 방재 · 안전

### 13. 변화가를 대상으로 특별 치안대책 실시 (도쿄)

- 도쿄都에서는 2009년 4월 ‘안전·안심 마을 만들기 조례’를 개정하여 변화가의 치안대책을 강화함.
  - 도내 형사범죄 건수가 6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데도 도민은 5년 연속 ‘치안대책’을 제1과제로 꼽음.
    - 도민의 치안 체감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2008년 6월 아키하바라, 7월 하치오지에서 일어난 무차별 살인사건으로 변화가의 치안상태에 도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10년 후의 도쿄’ 실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9년에는 6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치안대책을 펼치며, 2011년까지 3년간 15개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임.
    - 변화가에 있는 사업자, 주민, 지자체, 경찰이 연계하여 방범조직을 만들고, 방범 카메라 등 방범설비와 방범환경을 정비하며, 자율적으로 방범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都에서 이를 적극 지원함.
    - 2009년에 지정된 대상지역은 아키하바라 역, 긴시초 역, 지유가오카 역, 이케부쿠로 역, 하치오지 역, 다치카와 역 주변임.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7/20j7f100.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7/20j7f100.htm))

## 도시 환경

### 14. '지역에서의 에너지 유효이용 계획서 제도' 신설 (도쿄)

○ 도쿄都是 CO<sub>2</sub>를 줄이기 위해 환경확보조례를 개정하고 '지역에서의 에너지 유효이용 계획서 제도'(조례 제17조)를 신설함.

- 이는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에너지 유효이용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임.
  - 적용 대상은 총건평이 5만㎡를 초과하는 대규모 개발임.
  - 대지 면적이 2만㎡ 이상이고, 신축 또는 증축되는 총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성능 목표치를 정하도록 함(공장, 주차장, 창고 건물 제외).
  - 목표치는 「도쿄都 건축물 환경배려 지침」의 건축물 열부하 저감과 설비시스템의 에너지 절약 기준에 준하여 정함.
  - 에너지 유효이용 계획서 제출기한은 건축 확인신청 180일 전까지임.
  - 지역냉난방 구역 지정과 지역 에너지 공급계획서 작성도 의무화되어 있음.
- 유효이용이 가능한 에너지로 검토 중인 대상은 다음과 같음.
  - 특정 개발구역 안과 그 경계에서 1km 범위의 폐기물·슬러지 소각 배열, 하수처리열, 하천수와 해수의 열
  - 특정 개발구역 안과 이에 근접한 가구의 건물 공조설비에서 발생하는 배열
  - 특정 개발구역 안의 지하철 건설사업에서 발생하는 배열, 태양열 에너지
- 환경확보조례 제19조와 제20조에 근거한 '건축물 환경계획서 제도'도 이번에 함께 개정함.
  - 적용 대상을 총건평 약 3만 3000㎡ 초과에서 약 1만 6500㎡ 초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아파트) 환경성능 표시항목에 태양열 에너지 이용을 추가함.

>>> 전문가 검토의견

- 도쿄都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유효 에너지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환경확보조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
  - 첫째, 기존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에 더하여 개발규모에 따라 에너지 절약성능 목표치를 정하여 관리함.
  - 둘째,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일정거리 이내에 있는 다양한 유효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에너지 대체효과를 높임.
  - 셋째, 건물의 에너지 절약과 대체에너지 이용 대상을 확대함.
- 새롭게 개정된 환경확보조례는 도쿄都의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건물부문 에너지 소비부하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에너지 절약성능 목표치 설정, 지역의 유효이용 가능 에너지 활용과 같은 건물에너지 이용의 목표관리는 에너지 저소비도시 실현을 위한 저비용 고효율 전략으로 향후 기대하는 바가 큼.
- 2009년 7월 2일 발표한 '서울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서울의 저탄소사회 실현전략으로 건물과 교통부문 에너지 절약과 이용효율 증진,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우선 고려하였음.
  - 건물부문 에너지 소비부하 경감과 대체에너지 이용 증진이 향후 서울형 저탄소사회 실현의 관건임을 고려하면, 에너지 이용 목표관리(건물의 에너지 이용 총량관리), 대체에너지 이용 할당(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 할당)을 포함하는 도시에너지 관리시스템(UEMS)을 조기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김운수 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장(woonkim@sdi.re.kr)



● 런던

- 운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구직자에게 온라인으로 비즈니스·구직 정보와 컨설팅 서비스 제공

● 베를린

- 학교, 실내체육관, 區청사 등 14개 공공건물 지붕·옥상에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설 설치

15. ‘식용정원 가꾸기 사업’, 왕립원예학회상 수상 (런던)

○ 시행한 지 1년 된 런던市の ‘식용정원 가꾸기 사업’(Capital Growth)이 영국 왕립원예학회상을 받음.

- 이 사업은 2012년 런던올림픽 개최 전까지 식용정원 2012개소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2008년부터 시행해왔음.

- 환경단체인 Sustain이 市 후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로 제방, 학교, 건물 옥상, 개인 정원, 쌈지공원 등에 100여 개의 식용정원을 조성함.

- 왕립원예학회상 시상식은 런던 교외 왕실정원인 햄튼 코트(The Hampton Court Palace)에서 열리는 꽃 축제 기간에 개최됨.

- 햄튼 코트 꽃 축제는 16만 명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축제로, 市는 ‘맛있는 공간’(Edible Spaces)이란 주제로 이 사업을 소개하는 전시공간을 마련함.

- 바로 따서 먹을 수 있는 식용작물로 꾸며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시청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비료, 주방용기를 재활용한 화분 등을 전시해 저렴하면서도 독특한 정원 가꾸기 아이디어를 소개함.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2779](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2779))

([www.capitalgrowth.org](http://www.capitalgrowth.org))

16. ‘제품과 서비스의 CO<sub>2</sub> 발생량 표기’ 회의 개최 (독일)

○ ‘제품과 서비스의 CO<sub>2</sub> 발생량 표기’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가 2009년 7월 2일

베를린에서 열림.

- 제품 생산과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후 영향을 앞으로 어떻게 통일된 방식으로 표시할 것인가가 주 이슈였음.
  - 경제, 과학, 정치 분야 전문가 200여 명이 참가해 'CO<sub>2</sub> 발자국'(Product Carbon Footprints) 라벨의 공통 사용방안을 논의함.
  - CO<sub>2</sub> 발자국은 사람의 삶과 생산, 소비 등 온갖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수치화한 것임.
- 독일연방 정부는 환경부, 환경청, 생태연구소와 공동으로 기업이 자사 제품의 생산과 소비,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CO<sub>2</sub> 양을 표시하도록 지침을 만드는 중임.
  - 이날 회의에서는 제품의 생산 및 소비와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CO<sub>2</sub> 양만을 표기하기보다는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항을 함께 강조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견해가 우세했음.
  - 제품 생산에서 폐기에 이르기까지 이용된 용지(用地) 면적에서부터 수질 오염과 유해물질 발생 영향 측면까지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독일에서는 오래전부터 환경 라벨인 '블루엔젤' 라벨이 CO<sub>2</sub> 발자국을 포함한 주요 환경기준을 고려하여 사용되어 왔음.
  - 현재 30여 종의 제품과 서비스 부문이 블루엔젤로 평가되지만, 점차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가 늘어나 2011년까지 100여 종의 제품과 서비스 부문이 블루엔젤 라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www.bmu.de/pressemitteilungen/aktuelle\\_pressemitteilungen/pm/44511.php](http://www.bmu.de/pressemitteilungen/aktuelle_pressemitteilungen/pm/44511.php))

## 17. '미술관 섬'에 거대한 잔디공원 조성 (베를린)

- 베를린 중심부에 있는 '미술관 섬'(Museumsinsel)에 거대한 잔디공원이 새로 생김.
- 잔디공원이 조성된 곳은 市の 대형 프로젝트인 베를린 성(城)이 재건될 곳임.
  - 15세기에 지어진 베를린 성은 제2차 세계대전 때 크게 파괴되었는데, 동

- 독정부가 1950년에 이를 철거한 뒤 사회주의 건축양식의 ‘공화국 궁전’을 세움.
- 독일이 통일되고 베를린이 수도가 된 후 공화국 궁전을 보전하느냐, 철거하고 베를린 성을 재건하느냐를 두고 10년 이상 논쟁을 벌인 끝에 2002년 공화국 궁전 철거와 베를린 성 재건이 결정됨.
  - 현재 공화국 궁전은 완전 철거되고 베를린 성의 파사드 재건과 문화·예술·학문을 위한 훔볼트 포럼의 신축을 위한 설계가 끝났지만, 재정 문제로 건설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상황임.
- 市는 2010년 가을께 건설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곳을 한시적으로 거대한 잔디공원으로 조성해 2009년 7월 10일 개장함.
- 고전 양식의 루스트 정원 맞은편에 공원을 조성했으며, 총면적 2만 1600㎡ 중 1만 8110㎡에 잔디를 깔고, 잔디 위에 나무판조각을 연결해 길을 만들.
  - 나무판으로 만든 길의 한쪽에는 이곳의 역사와 미래를 보여주는 사진과 설계도를 전시하고, 다른 쪽에는 수십 대의 스피커를 설치해 세계적인 음향 예술가가 공동 기획한 음향예술을 체험할 수 있게 함.
  - 현재까지 든 비용은 140만 유로(약 25억 원)임.
  - 시민과 관광객은 베를린의 전통문화 중심지인 미술관 섬의 넓은 잔디공원에서 역사와 예술과 함께하는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됨.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0907/nachricht3530.html](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0907/nachricht3530.html))

● 도쿄

- 都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나 우유팩을 재활용해 만든 부채를 都의원 선거운동 기간에 배포
- 2001년에 세운 '도시 만들기 비전'을 개정해 세계적인 환경 선진도시 실현 추진

## 18. 세계 석학이 참여한 기후연구소 설립 (포츠담)

○ 베를린 남서쪽에 있는 포츠담市에 '지속가능성 연구소'(Institute for Advanced Sustainability Studies)가 최근 설립됨.

- 독일연방 교육부는 새로 설립한 연구소를 세계적 수준의 엘리트 연구기관으로 발전시키기로 함.
  - 전 세계의 젊은 인재와 노벨상을 수상한 세계 석학을 초청해 최상의 연구조건에서 기후변화 과정을 연구하게 함.
  - 연구주제는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인 기후변화의 영향, 이산화탄소 저감, 기후변화에의 적응, 미래 에너지원 등임.
- 연방 교육부는 연구소 운영비로 향후 7년간 매년 900만 유로(약 16억 원)를 지원하기로 함.
  - 연구소는 장학금 제공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략적인 연구 파트너십을 구축함.
  - 연구자는 50명 정도이며,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2년까지 이곳에서 연구하게 됨.
  - 권위 있는 자문기관이 연구원을 후원하며, 국제적으로 저명한 파트너 기관과 연계하여 연구를 수행함.
- 포츠담市는 지속가능성 연구소가 설립됨에 따라 세계 최고 수준의 기후와 지속가능성 연구도시로 면모를 갖추게 됨.
  - 市에는 기후영향 연구소와 독일 지오 연구센터가 있음.

([www.bmbf.de/press/2607.php](http://www.bmbf.de/press/2607.php))

## 도 시 교 통

### 19. 곡선 모양의 공간절약형 자전거거치대 설치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市)

- 팔로알토市에 좀 더 아담하고 활용도가 높은 새로운 곡선형 자전거거치대가 시범 설치됨.
- 아직까지는 U자형의 자전거거치대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많이 투자하는 만큼 앞으로는 곡선형 거치대가 늘 전망이다.
  - 곡선형 거치대는 재료를 최소한도로 사용하고, 설치공간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곡선형이라 인도(人道) 공간을 절약할 수 있어 공간 활용도가 높음.
  - 자전거 도난방지를 고려해 디자인하였으며, 자전거를 주차하기가 더 쉬워짐.
- 버스정류장에 거치대를 설치하는 등 도시의 특성에 따라 거치대를 세울 수 있음.
  - 현재 샌프란시스코, 롱비치 등 여러 도시에서 설치를 검토 중임.



팔로알토市의 자전거거치대



버스정류장 자전거거치대



폐쇄형 자전거거치대

([archpaper.com/e-board\\_rev.asp?News\\_ID=3608](http://archpaper.com/e-board_rev.asp?News_ID=3608))

#### >>> 전문가 검토의견

- 팔로알토市에 시범 설치된 자전거거치대는 수많은 기업이 제시한 자전거거치대 디자인 중 한 모델이며, 편리성이나 안전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음.

- 인도 공간을 절약한 디자인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빗물막이 차양은 도시 미관을 해칠 수 있으며, 경사각이 높아 노약자가 사용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음.
- 서울의 경우, 일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이와 유사한 자전거거치대를 사용하고 있음. 앞으로 편리성과 안전성을 개선하면, 향후 자전거 주차로 인한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현재 지자체별로 설치 중인 자전거거치대의 빗물막이 차양에 대부분 먼지가 쌓여 있어, 개선이 필요함.
-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곡선형 거치대의 장점을 살리고, 노약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를 자동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계식 거치방법을 도입하여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예시도 참조).



예시도

/홍석기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skhong@sdi.re.kr)

## 20. 무공해 수소버스 운행 (브라질 상파울루市)

-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수소연료 시내버스가 브라질에서는 처음으로 2009년 7월 상파울루에서 운행하기 시작함.
- 수소버스는 엔진소리가 나지 않고, 트롤리버스(무궤도전차)와는 달리 전기선이 필요 없으며,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수증기만 발산함.
  - 성 베르나르도의 연료생산 공장에서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로 분리한 뒤 수소 분자만 압축해 탱크에 저장함.
  - 수소버스는 이 수소연료를 이용해 운행하는데, 한 번 주입으로 300km를 운행할 수 있음.
  - 상파울루에 도입된 수소버스는 성 마테우스와 자바파라 사이를 왕복 운행하며, 산토 안드레, 성 베르나르도, 디아데마 등 상파울루 외곽도시를 통과함.

- 브라질은 2010년까지 수소버스를 4대 더 생산할 계획임.
  - 1대당 비용은 200만 헤알(약 10억 원)로, 일반버스 1대당 생산비용 50만 헤알(약 2억 5000만 원)과 비교하면, 4배 더 비쌌.
  - 수소연료 자동차 운행기술을 처음 개발한 독일의 기술자는, 수소자동차 수출국이 될 때 투자 자본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noticias.terra.com.br/brasil/interna/0,,OI3853805-EI306,00-Primeiro+onibus+movido+a+hidrogenio+construido+no+Brasil+e+apresentado+em+Sao+Paulo.html)

## 21. 새 브랜드의 지상전철 개통 (런던)

- 런던시는 월스덴 정선 역에서 54개의 새로운 지상전철역을 홍보하는 행사를 열어 기존 지상전철을 더 한층 발전시킨 새로운 브랜드의 지상철도를 공개함.
- 시는 이전의 불편한 지상전철과는 다른 글로벌도시 런던의 수준에 걸맞은 전철임을 강조함.
  - 새 지상전철은 기존 전철보다 승차공간이 더 넓어지고 감시카메라가 늘었으며, 냉방시설도 새로 설치함.
- 시는 지상전철인 이스트런던 노선 확충공사를 2012년 완료하면 지상전철 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밝힘.
  - 새 지상전철이 2012년 런던올림픽 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함.
  - 2011년까지 기존 3량짜리 지상전철에 네 번째 객차를 추가하면, 지상전철의 수송능력을 50%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2799)

## 도시계획·주택

## 22. 도요스 지구를 ‘운하르네상스 추진지구’로 추가 지정 (도쿄)

○ 도쿄都는, 배를 이용한 교통이 활발하지 않지만 운하의 수변공간이 도시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보고, 운하를 지역 주민의 휴식과 모임 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해 ‘운하르네상스’ 사업을 2004년부터 추진함.

- 운하르네상스는 수변공간의 매력을 높여 관광 활성화를 꾀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운하 등 수역(水域) 이용과 주변 마을 만들기를 함께 진행함.
  - 이미 4개 지역을 운하르네상스 추진지구로 지정하여 수변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으며, 2009년에는 도요스 지구를 추가 지정하여 지역 발전과 운하 재생을 꾀함.
  - 추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마을 만들기 구상, 수역 이용 구상, 호안(湖岸)과 산책길 정비, 경관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 추진지구로 지정되면 수역 점용(占用) 규제가 완화(레스토랑과 상점 설치 허용)되고, 다른 수상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운하 축제 등을 열 때 지원받을 수 있고, 운하 주변을 녹화하거나 산책길을 정비할 수 있음.



시바우라 운하 축제의 한 장면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7/20j78500.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7/20j78500.htm))

([www.kouwan.metro.tokyo.jp/seisakujouhou/seisakujouhoupageindex.html](http://www.kouwan.metro.tokyo.jp/seisakujouhou/seisakujouhoupageindex.html))

### >>> 전문가 검토의견

- 도쿄都의 사례처럼 세계 대도시의 경우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공공성이 높은 수변공간은 공공에서 의지를 갖고 민간의 개발을 유도하거나, 공공기구



(Public Authority)가 직접 개발하고 관리함.

- 서울시도 ‘한강르네상스’,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 등과 같은 장기적인 구상과 계획을 마련해 수변공간의 기능과 경관에 변화를 주고 있음.
- 수역과 주변 지역을 통합 정비하고, 지구를 지정해 공공의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면 공공성이 높은 수변공간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임.

/박현찬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hcbahk@sdi.re.kr)

### 23. ‘에너지 절약형 공영주택’ 건설 (파리)

- 파리市 부동산공사는 파리 기후계획의 첫 번째 사업으로 11구(區) 구에노가(街) 7번지에 ‘에너지 절약형 공영주택’을 지을 계획임.
- 237개 팀이 설계경기에 참가해 현 도시기반 위에서 기술적·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에너지 절약형 건물’ 모델을 제시함.
  - 미리 선정된 6개 팀이 더욱 심도 있는 20개 모델을 제안해 건축 분야에서 다양한 에너지 재생방안을 모색함.
- 설계경기 결과, 보도양 베르제롱 건축설계사무소의 설계안이 최종 채택됨.
  - 이 설계안에 따르면, 삼중으로 된 창문을 설치해 쾌적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태양열 에너지로 온수와 전력을 만들.
  - 이를 토대로 에너지 절약형 공영주택을 2011년에 완공할 예정임.

([www.paris.fr/portail/accueil/Portal.lut?page\\_id=1&document\\_type\\_id=2&document\\_id=71656&portlet\\_id=21961](http://www.paris.fr/portail/accueil/Portal.lut?page_id=1&document_type_id=2&document_id=71656&portlet_id=21961))

### 24. 공공주택 디자인지침 마련 (런던)

- 런던市는 공공주택 디자인지침(London Housing Design Guide)을 마련해 2011년부터 공공의 재원으로 짓는 주택은 이 지침에 따르도록 함.
- 지침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택 품질에 관한 최소한의 표준을 정

한 것임.

- 지침서는 개발을 추진할 때 유념해야 할 핵심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건물과 건물 사이 공간과 건물 주변 공간을 넓은 공공영역과 연계
  - 건물 출입구와 공용 공간 사이 동선을 합리적으로 설계
  - 배치, 방 크기 등 최소한의 내부공간 표준 설정
  - 주택을 조용하고, 밝고, 통풍이 잘되는 안락한 공간으로 조성
  - 기후변화에 잘 적응하고, 무덥거나 비가 자주 내리는 계절에도 적합하도록 디자인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2738](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2738))